어린이 책꽂이

▲싸움꾼 릴리=언제나 싸움을 벌여 '싸움꾼'라는 별명을 가진 5학년 여자아이 릴리가 체첸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온 친구를 만나면서 변화하고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이다. '싸움'과 '전쟁'이라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아이들이 현실에서 충분히 겪을 수 있을 만한 소재를 이용해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있다. 〈미래아이·9천원〉

▲무지개를 먹어버린 봄봄씨=어린이를 위한 환상동화다. 일곱 빛깔 무지개는 어떤 맛일까? 세상의 비밀을 기록하는 다람쥐들 할머니는 왜 스프를 끓이고 있었을까? 책을 읽으면 정말 '무지개는 어떤 맛일까?' 상상하게 되고 '사고뭉치 봄봄씨와 다람쥐들은 그 후로 어떻게 지냈까?' 궁금해진다. 〈뜨인돌어린이·8천500원〉

▲아기 거미의 생일초대=아기 거미 봄이는 나비, 호박벌, 베짱이에게 생일잔치 초대를 하지만 거절당한다. 집에 있는 거미줄 때문이다. 크게 실망한 봄이에게 엄마는 '거미줄은 우리에게 날개와 같은 것'이라고 위로하지만 봄이는 슬프기만 하다. '나만의 장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전해주는 동화책이다. 〈어린이작가정신·9천원〉

▲앗! 따끔=콧물은 줄줄, 열은 펄펄 나는데 준혁이는 주사 맞는 게 무섭다. 엄마가 병원에 가자고 하자 준혁이는 자신이 사자라며 사자는 힘이 세니까 병원에 안 가도 된다고 우긴다. 병원에 가기 싫어서 요리조리 꾀를 내는 아이의 마음을 재치 있는 상상으로 표현해낸 그림책이다.
〈시공주니어·8천500원〉

▲웃음대장 할머니=일본의 유명 코미디언인 시마다 요시치가 히로시마 원폭 후유증으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시골 할머니 손에서 자랐던 경험을 토대로 쓴 책이다. 지독하게 가난하지만 한없이 밝고 유쾌했던 할머니와 엉뚱한 아홉 살짜리 손자의 소박한 행복이 잔잔한 감동과 웃음을 준다. 〈예원·9천원〉

▲아주 특별한 몸속 여행=의과대학 해부학 교수님이 쓴 어린이를 위한 인체 책이다. 해부학을 바탕으로 우리 몸속에 있는 기관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움직이는지 설명한다. 몸속 여행선 '콩알콩알호'를 타고 몸속 세계로 들어가 각 기관의 역할을 차근차근 알려주고, 우리 몸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다. 〈토토북·9천500원〉

▲공주도 똥을 눈다=초등학교 2학년이 된 슬기, 만수, 현정이의 우정을 그린 동화집이다. 동화작가 윤정씨의 창작집으로 '만수야, 놀자', '공주도 똥을 눈다' 두 편의 이야기를 통해 친구의 의미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차이 등을 아기자기하게 그려냈다. 〈해와나무·7천원〉

▲나무야 나무야 이야기를 들려다오=매화나무·사과나무·밤나무 등 이름난 들어도 정겨운 우리 주변의 나무들 가운데 30종을 선정 나무의 생태와 특징, 이름의 유래와 역사에 얽힌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 놓았다. 여기에 나무의 특징이 되는 잎, 꽃 , 열매, 줄기 등의 세밀화와 사진을 담아 작은 '나무 도감'의 역할도 한다.
〈서강BOOKS·1만2천원〉

보물찾기, 그 뿌리칠 수 없는 욕망

보물이 숨긴 비밀

송옌 지음

목이 없는 한 남자의 시체가 광장 중앙에 거꾸로 매달렸다. 자신의 보물창고를 침입해 보물을 훔쳐간 범인의 신원을 알아내지 못한 세티 1세는 화가 났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공터에 교수대를 설치하고 시체를 거꾸로 매단 것이다.

병사들은 지나는 사람들 중에 범인의 시체를 보고 슬퍼하는 기색을 보이는 사람을 찾기 위해 광장 주위를 철저히 경계했다. 보물 창고에 숨어들었던 이 남자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서다.

옛 이야기를 통해 보거나 뉴스를 들어다 보면, 보물을 찾아 나선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위험천만한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 이집트 세티 1세의 보물을 탐내다 죽음에 이른 이 남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보물 창고에 설치된 덫에 걸려 동행한 동생에게 자신의 목을 베게하고 죽음으로 자신의 흔적을 지웠다.

황금 법궤, 황금 동상, 왕가의 다이아몬드 등을 찾기 위해 이제껏 수많은 사람이 전 세계 곳곳에서 애쓰고 있으며 이 지루한 사투는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들을 그토록 열광하게 하는 것일까? 목이 잘리고 맹수에게 잡혀 먹힐 만큼 위험한 순간들을 감수하면서 보물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몰려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공개되지 않은 진실이나 평범한 삶에서는 엄두도 못 낼 거액의 보물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과 동경일 것이다.

중국 작가 송옌(宋岩)이 쓴 '보물이 숨긴 비밀'은 이와 같은 보물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을 사실적으로 언급한다.

저자는 인간의 호기심과 동경, 물질에 대한 탐욕 등이 빚어낸 전 세계 곳곳의 보물에 얽힌 45가지 이야기를 5개 주제별로 흥미진진하게 풀어냈다.

보물이 사라지게 된 배경과 이를 찾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수많은 탐험가의 탐사과정, 그리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 등이 전 시대, 전 영역을 거쳐 종횡무진하게 펼쳐진다.

칭기즈칸의 비밀 왕릉에서부터 성전기사단의 보물과 남아메리카 황금의 나라까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 다양한 보물에 대한 미스터리를 실감나게 전한다.

책은 단순히 흥미진진한 이야깃거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굴과 보물 탐험의 역사가 가지는 의미, 반복되는 역사의 패턴 등에 대해서도 알게 해준다.

제정러시아시대 화려함과 호사함의 극치로 상징되던 호박방은 정교한 장식과 뛰어난 예술성으로 인정 받았다. 하지만 1944년 나치의 약탈로 종적을 감추었다. 사진은 파괴 62년만에 복원된 러시아 예카테리나 궁전의 호박방.

보물을 찾는 일은 흥미로운 일이지만 다 부질없는 일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보물이 많다고 알려진 마야인의 성스러운 우물의 비밀을 찾았지만 결국 산꼭대기에서 홀로 죽음을 맞았던 다니엘이라는 프랑스 탐험가의 말처럼, 보물이 인간에게 치명적인 욕망과 함께 치명적인 결말도 가져다주는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선 실낱같은 희망을 찾아 '보물 찾기'는 계속되고 있다. 이를 보면 인간의 호기심과 동경, 물질에 대한 탐욕은 끝이 없는 듯하다. 〈애플북스·1만3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새들의 독특한 매력과 감정

필드가이드 새

이기섭 지음

새 전문 생태사진가 이종렬씨가 찍고 조류 연구가 이기섭 박사가 쓴 생태도감 '필드가이드 새'는 새마다 갖고 있는 독특한 매력과 소리, 감정까지 담아낸 책이다. 특히 손바닥만 한 포켓사이즈로 현장학습, 자연탐사에 나서는 이들을 위한 완벽 가이드를 자부한다.

320종의 조류를 630장의 사진으로 포착한 책은 분권하지 않은 도감 중 국내 최대 종수와 사진을 수록했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대표 새들은 물론 '느시'와 '넓적부리도요' '검은머리딱새'와 같은 희귀 새들이 상세한 설명과 함께 실려 있다.

주머니에 쏙 들어갈 크기의 '필드가이드'는 휴대하기 간편하며 사진도감과 그림도감의 장점만을 모두 취했다. 실사를 통한 사실감을 높이되 불필요한 사진의 배경을 없애 쉽게 새를 구별할 수 있게 했다. 또 여백에 관련 사진과 설명을 덧붙여 이해를 도왔다.

책은 지난 7월 출간된 '필드가이드 나비'에 이은 필드가이드 2탄이다. 앞으로 '필드가이드' 도감 시리즈로 '봄꽃'(12월) '곤충'(2010년 2월) '여름 가을꽃'(2010년 5월) '잠자리' '갯벌' '양서파충류' '거미' '숲' 등을 출간할 예정이다.

〈필드가이드·1만2천5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시대를 지배하는 강력한 상상력

이매지너-다음 세대를 …

김영세 지음

빌 게이츠가 칭찬했던 '아이리버 H10'을 디자인한 세계적인 디자이너 김영세(이노 디자인 대표)가 신작 '이매지너-다음 세대를 지배하는 자'를 펴냈다.

'이노베이터' 이후 4년 만에 펴낸 이 책에서 그가 강조하는 건 '강력한 상상력'이다.

저자가 말하는 '이매지너(Imaginer)'는 감성적 능력이 발달한 우뇌형 인간으로, 강력한 상상의 힘으로 미래의 가치를 현실의 성공으로 이끌어 내는 사람이다. 꿈꾸는 사람이자, 생각을 그리는 사람, 미래에 먼저 가보는 사람이기도 하다.

저자는 자신이 디자인한 상품들의 사례를 통해 '이메이징'의 가치를 이야기한다.

1년간 200만개가 판매된, 핸드폰 처럼 위로 밀려 올라가는 화장품 '라네즈 슬라이드 팩트', 액정이 돌아가는 삼성의 '가로본능폰',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는 아이리버 MP3 플레이어 등 히트 디자인들이 탄생하게 된 과정은 흥미롭다.

책에서 그가 제안하는 이매지닝의 방법은 '익숙한 것에 딴지를 걸어라', '관찰의 힘, 일상에서 보물을 찾아라', '불편함을 참지마라' 등이다.

〈1만3천원·랜덤하우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수현·김정수씨 등의 작가론

29인의 드라마 작가 …

신주진 지음

한국을 대표하는 드라마 작가들을 꼼꼼히 살핀 흥미로운 책이 나왔다.

각종 매체에 드라마 분석과 비평글을 쓰고 있는 신주진씨가 펴낸 '29인의 드라마 작가를 말하다'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김수현부터 20대 홍정은('쾌도 홍길동' 등)까지 대표작가들에 대한 작가론이다.

이 책이 흥미로운 건 '작가 VS 작가'라는 포맷을 활용한 점이다.

저자는 '각자의 개인사들보다는 작가들 사이의 영향 관계나 유사성과 차이점 등을 통해 전체 드라마 지형과 구조를 더 잘 볼 수 있다고 판단, 이같은 포맷을 활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 드라마계의 대모인 김수현과 김정수를 통해서는 가부장 체제를 어떻게 드라마로 풀어내는 지 알아보고 '선덕여왕'의 김영현과 '세종대왕'의 윤선주를 분석, 현대 사극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기획드라마의 시대를 연 '모래시계'의 송지나와 '올인'의 최완규, 욕망과 계략의 이중주라는 카테고리로 묶은 '왕꽃 선녀님'의 임성한과 '밥줘'의 서영명, 장르드라마의 가능성을 보여준 '마왕'의 김지우와 '얼렁뚱땅 흥신소'의 박연선 등 흥미로운 작가들을 만날 수 있다. 〈도서출판 밈·1만8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한길부동산중개
광주 서구 쌍촌동 1301-1(상무자구 5, 18공원 앞)
상담전화 ☎ 011-647-4114

주유소 매매

북구 중흥동 1,250㎡
매매가 12억(임대가)
대로변, 위치좋음, 공시지가이하
현 임대 수입 : 보증금 21,000만, 월 800만

- 전원주택 매매 -
화순군 춘향면 용두리 69번지
대지 1,270㎡ 매매가 4,500만

◉ 상담전화 ◉
☎011-647-4114

다사랑(유통)
안정적인 제품공급, 다양한제품, 최저가상품공급
[성인용품 창업정보]
[15년 쌓은 노하우를 전수해드립니다.]
소자본을 투자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이템은 거의 없습니다.
소자본창업으로 성인용품점은 최고의 아이템입니다.
소자본창업을 준비하고 계시고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창업상담을 받아보세요.
창업 / 도매 / 문의전화
광주전화/062-263-7335
서울전화/02-2217-7335
핸드폰/010-4499-4594
저희 다사랑유통에서는 오랜 창업 노하우를 잘 아는 위치와 성공하는 위치의 맥을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나 방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주소 http://www.bstar.co.kr

태양광발전소 및 사업인수
대 상
연간 기준가격 적용대상설비 발전소
-사용승인 후 현재 가동 중인 건
연간 기준가격 적용대상설비 선정 사업부지
-2010년, 2011년 선정 건
지 역 전국
규 모 200KW이상
기 한 2009. 10. 20
자금집행 서류 완비 후 1개월 이내
미래를 창조하는 기업 해와 땅
상담문의 010-7219-7123

(주)국민법률경매
공인중개사 : 강 영 희
☎ 062)364-8700
H.P 010-4608-3700
• 서구청옆 광주세무사타운5층 • 권리분석-현장답사-입찰대행-낙찰(잔금부족시 최저금리 대출알선)-명도(이사)